‘짝퉁’ 낙지 판매…소비자 우롱한 ‘타락 수협’

원산지 허위표시 심각
광주지검, 14명 적발

美産 돼지고기 국산 둔갑
식육판매점 적발도

어이없는 판매 실태 보니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중도매인이
중국산 산낙지를 무안뻘낙지로 속여
국민식탁 위협하고 어민들까지 피해

수협에서조차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한 불신감 뿐 아니라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 공급’을 공언해온 수협의 ‘짝퉁’ 낙지 판매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국민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소비자를 속였을 뿐 아니라, 어민 육성·지원을 위한 수협이 보호해야 할 어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타락’한 도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영수)는 1일 중국산 산낙지를 무안 뻘낙지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광주 농수산물유통센터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중도매인 A(53)씨를 구속기소하고, 중도매인 B(48)씨 등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관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식육판매점 대표 C(50)·영업팀장 D(4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중도매인 14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3년여간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서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 또는 ‘무안 뻘낙지’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년여간 국내산 산낙지 수급량이 부족한 시기(8월~12월)에 중국산 산낙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무안 뻘낙지’ 등으로 속여 400만부터 많게는 2억 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2~3등급 한우를 1등급 이상으로 속이거나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수법으로 2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식육판매점 대표 C씨 등 2명을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수산물 이력제’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이 같은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물 이력제는 정부가 지난 2008년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수산물을 가려내고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하지만 참여 업체가 극히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수산물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하게 한다는 취지도 빛이 바랬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이날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이력제를 본격 시행키로 발표했음에도, 소비자 반응은 냉담하다.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검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쇠고기 등 관련 허위표시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만 역할이 제한돼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5개 유형의 10가지 범죄를 ‘가장(假裝)범죄’로 분류 연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30원짜리 문자 보냈다가 수천배 보상금 물어낼 판

광주경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 손배 청구키로

광주 경찰이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 경찰 행정력을 낭비한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광주·전남 경찰이 허위 신고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해당 신고인은 30원 짜리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수 천배에 이르는 피해 보상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일 광주시 한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봤다는 허위 문자 메시지를 112 상황실에 보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22)씨를 입건하는 한편, 경찰력이 엉뚱한 데 낭비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경찰이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해왔지만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청의 경우 지난해 9월 2440건의 장난 전화로 업무를 방해한 이른바 ‘욕쟁이’ 신고자를 입건한 바 있지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지 않았고 전남청도 청구한 사례는 여태껏 없었다.

그러나 폭발물 처리반(16명)이 긴급 출동한 것을 비롯해 경찰 인력 60명, 군 폭발물 처리반 20명, 소방 병력 10명 등 1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2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인데다, 여기에 사용된 경찰차 유류비 등을 고려하면 이번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가 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은 차량 유류비,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수, 계급별 근무 시간에 따른 일당과 수당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허위·오인 신고는 광주 161건, 전남 550건 등으로 이 중 154건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은 지난해 8월 경륜장 출입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에게 경찰병력 40여명을 동원해 2시간 수색에 들어간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포함, 모두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민원해결 돈받은 전 비서관
광주지검, 징역 2년 구형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택균)는 1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6)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8~9월 자신이 비서관으로 있는 광주 모 의원 사무실에서 남구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광주시 산하 사업소 취업, 광주시·남구·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자재 납품 등을 돕겠다며 다른 2명에게 3000만원, 2000만원을 각각 받아 납품 청탁을 의뢰한 업자에게 갚은 혐의도 포함됐다.

김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34주년 행사 기본방향 설명 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상임위원장들이 올해 34주년 기념행사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잔소리 한다”며 격분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

여수경찰은 1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1일 오후 5시30분께 여수시 남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64)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인 김씨는 이날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집을 나가라”며 잔소리를 하면서 방문을 닫고 나가버린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잦은 음주 때문에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마을 주민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붙잡았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화난 시내버스 운전기사, 태권도장 관장에 박치기 세례

쌍나팔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추돌하려 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인 태권도장 관장에게 박치기를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서행.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모(55)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여성발전센터 앞 도로에서 앞서가던 김모(42)씨의 태권도장 승합차를 멈춰 세운 뒤 하차한 관장 김씨의 멱살을 잡고 박치기를 한 혐의.

○…이씨는 경찰에서 “갓길로 시내버스를 몰고 가는데, 2차선에 있던 김씨가 갑자기 갓길로 끼어들면서 교통사고가 날 뻔해 순간 화가 났다”고 선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